

# 웹툰·드라마·영화 경계 허물기 가속

### 웹툰 원작 드라마·영화 대세 하나의 콘텐츠 부가사업 다양 두 장르 동시 제작까지 활발

웹툰과 영화, 드라마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웹툰 기반 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드라마와 영화가 서로 외피를 바꿔 입고 재탄생하기도 한다.

두 장르를 동시에 기획·제작하는 새로운 실험도 추진된다.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부가사업을 진행하는 원소스멀티유즈(OSMU)의 일환이자, 청정부지로 치솟는 제작비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웹툰 원작 드라마 tvN 수목극 '진심이 닿다'

◇ 웹툰·드라마·영화... "따로 또 같이"  
최근 안방극장에서는 웹툰 원작 드라마가 대세다. 이동욱·유이나 주연의 tvN 수목극 '진심이 닿다'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웹 소설과 웹툰이 원작이다. 주지훈 주연의 MBC TV 새 월화극 '아이템'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좋아하면 울리는', 다음 달 말 제대하는 임시환의 복귀작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등도 웹툰에서 출발했다.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함께' 시리즈는 동명 영화 1, 2편으로 제작돼 총 2천600만 관객을 모았고, 뮤지컬로도 선보였다. 내년에는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영화와 드라마의 이종결합도 활발하다.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 시리즈는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로 제작된다.

1천200만 관객을 불러모은 화제작 '광해:왕이 된 남자'는 tvN 드라마로 포맷을 바꿔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안성기·박준환 주연 영화 '라디오 스타'도 드라마로 리메이크된다.

◇ 같은 세트서 같은 배우로 동시 제작  
스튜디오N은 네이버 인기 웹툰 '비질란테'를 영화와 드라마로 동시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화·드라마 동시 제작

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미경 스튜디오N 대표는 최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제작·배급사) 춘추전국시대인 만큼,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는 게 우리 회사의 의무"라며 "기존 업체가 하지 않던 것,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매체와 장르 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말했다.

'비질란테'(그림 김규삼·글 CRG)는 어린 시절 동네 건달의 손에 어머니를 잃은 경찰대생이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내용을 그린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형벌을 받고 풀려난 이들이 그 대상으로, 이를 통해 사법체계의 허점 등을 고발한다. 잔인한 장면이 제법 등장하지만, 실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에피소드가 녹아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스튜디오N이 구상하는 동시 제작은 영화 '신과함께' 1, 2편의 제작 방식과 유사하다.

스튜디오N은 지난해 8월 설립된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다. 네이버웹툰이 보유한 지

식재산권(IP)이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사·방송사 등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스튜디오N은 오리지널 웹툰 2천여편 가운데 '비질란테'를 포함해 '여신강림' '상종하' '타인은 지옥이다' 등 10편을 국내 업체들과 손잡고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우선 제작할 계획이다.

◇ 플랫폼 다변화와 제작비 상승 대처  
장르 간 결합은 플랫폼과 매체의 다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갈수록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두 장르를 동시 제작하는 시도가 성공할 경우 새로운 제작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본다.

영화 관계자는 "많은 돈을 투입해 세트장을 만들어도 곧 허물어야 하는데, 영화와 드라마를 같이 찍으면 제작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아울러 영화나 드라마로 먼저 인지도를 높인 뒤 나머지 작품을 공개할 경우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유튜브 도전 박준형·임혁필 "개그에도 사전이 필요해요"

### KBS '갈갈개그대백과사전'

'갈갈이' 박준형(46)과 '세바스찬' 임혁필(47)이 흘러간 개그들을 '집대상' 해 소개하는 프로그램 '갈갈개그대백과사전'을 KBS 유튜브 채널 '크르티비' 내에 론칭한다. 최근 유튜브에 도전하는 개그맨들이 넘치지만 상당한 고참인 박준형과 임혁필의 시도는 더 신선하게 느껴진다.

박준형은 "대한민국에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개그들이 너무 많다. 콩트와 콩트 사이 작은 것들이 예전엔 꽤 있었는데 흘러가 버렸다. 그걸 모아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국어도 영어도 사전이 있는데 개그는 왜 없나. 개그에도 사전이 필요하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는 이어 "영혼의 단짝인 파트너 임혁필이 함께해준다고 해서 참 좋다"며

"이외에도 MBC 개그우먼인 김세아와 '갈갈이 패밀리'의 김시덕, 오지현도 객원 멤버로 도와주기로 해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임혁필은 "최근 지하철 광고판이 은둔하얏다. 아무도 광고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 보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개그콘서트' 시청률이 35%에, 1주일만 나와도 스타가 되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나와도 대중들이 잘 모르는 후배가 너무 많다. 코미디도 유튜브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방송 시청자보다 유튜브 구독자들이 훨씬 냉정하다"며 "그래서 정신력이 더 강해야 한다. 바로 좌절해서 포기하면 끝"이라고 강조했다.

'갈갈개그대백과사전'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코미디 계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갈갈이' 박준형(왼쪽)과 '세바스찬' 임혁필

두 사람은 "TV보다 유튜브는 훨씬 호흡이 빠르죠. 기승전결이 필수고 마지막에 터져줘야 하고요. B급 코드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박준형)

"유튜브는 방송처럼 심의가 없죠. 저희 둘은 '허리급 개그맨'인 만큼 방송보다 과감하게, 그러면서도 절제하면서 고급스럽게 개그를 풀어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방송이 너무 짧은 세대 위주로 흘러가는데, 유튜브로 오히려 중장년의 욕구를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임혁필)

/연합뉴스

# SBS '열혈사제' 시청률 13.8% ... 금토극 1위

SBS TV가 새롭게 선보이는 금토드라마 '열혈사제'가 첫 방송부터 시청률 10%대를 넘기며 '대박'을 터뜨렸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방송된 '열

혈사제' 1·2회는 전국시청률 10.4%~13.8%를 기록했다.

첫 방송에선 가톨릭 사제 김해일(김남길 분)이 사기 곳판을 벌이던 일당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

회와 식사 초대에 응한 개그우먼 이영자(정우성·사신)의 등장도 시청률도 고공행진 했다. 1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 방송한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시청률은 11.5%~13.3%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12.8%~15.0%로 집계돼 프로그램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전날 방송에서는 정우성의 영화 시사

에 잡혀가는 모습이 담겼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도시 구덩이로 쫓겨간 그는 성당 미사 시간에 빵을 먹는 신자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등 까칠한 성격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신개 용서를 빌려 온 신자들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일갈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이드' 발언을 안겼다.

/연합뉴스

# "똥따 정우성" ... MBC '전참시' 시청률 13.3%

외모와 매너, 예능감까지 갖춘 배우 정우성(사신)의 등장에 시청률도 고공행진 했다. 1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 방송한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시청률은 11.5%~13.3%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12.8%~15.0%로 집계돼 프로그램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전날 방송에서는 정우성의 영화 시사

회와 식사 초대에 응한 개그우먼 이영자(정우성·사신)의 등장도 시청률도 고공행진 했다. 1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 방송한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시청률은 11.5%~13.3%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12.8%~15.0%로 집계돼 프로그램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전날 방송에서는 정우성의 영화 시사



애정과 배려가

리드 아래 그의 훈련대로 음식을 맛있게 먹고 화려한 리액션을 보여주는 등 예능감까지 빠른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아이(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kbc 긴급진단 5.18 망언, 이대로 안된다(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뽀빠 55 뽀뽀 뽀뽀 유아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방학특선 다큐멘터리 장벽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15 문자방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00 원소집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최용신)			
[10]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00 아이(재)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창사특집 UHD 다큐멘터리 (꿈)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스포츠특선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교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배워서 남줄(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몬카트(재)	<스페인 소도시 기행 1부 정열의 꽃 세비야>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고택의 겨울 1부 불천위(不遷位), 종가의 품격>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우리는 비트로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똑딱맨	23:55 배워서 남줄(재)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4:50 세계의 드라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기회가 밝게 빛나리라. 48년생 이대로 가다가는 기반이 흔들리째 흔들리겠다. 60년생 소기의 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판시세에 놓인다. 72년생 분의 아니게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84년생 지연되고 결과도 늦추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2, 29</p>	<p>42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 한다면 실수를 면한다. 54년생 과정상의 괴로움은 보이나 결실은 달콤하리라. 66년생 모순점은 확실히 배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78년생 관망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90년생 미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5, 38</p>
<p>37년생 예상이 빗나가 버릴 수다. 49년생 착실하게 진행 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61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73년생 바탕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85년생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면역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70</p>	<p>43년생 실효적 방안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55년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한 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겠다. 67년생 자발적으로 대응한다면 성공이 달리지리라. 79년생 배려하려는 노력이 요청 된다. 91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6, 23</p>
<p>38년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50년생 일정한 기간 동안은 무사태평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지나치다보면 역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74년생 처지와 정황을 감안하여 차신하라. 86년생 관계의 소중함을 절실히 통감하게 되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 73, 41</p>	<p>44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해 보는 것도 괜찮다. 56년생 전혀 의심할 바가 아니니 지체하지 말라. 68년생 손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80년생 한껏 멋내고서 달밤에 홀로 걷는 격이다. 92년생 반복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7, 67</p>
<p>39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난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51년생 별 희한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양보해야만 결론에 이른다. 75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87년생 더불어 논의한다면 훨씬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62</p>	<p>45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이. 57년생 바쁜 일상 속에서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69년생 크게 한숨을 쉬게 된다. 81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 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93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2, 99</p>
<p>40년생 무시한다면 위협에 직면한다. 52년생 흔들리지 않는 안목과 독창성이 요구되는 판도이다. 64년생 서두르면 오히려 더딜 수 있다. 76년생 주관을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88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1, 56</p>	<p>34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46년생 필요하다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느니라. 58년생 기교까지 살펴보는 것이 이익이다. 70년생 바라는 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82년생 확실히 대처한다면 막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2, 85</p>
<p>41년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53년생 기본적 양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버려라. 65년생 실책이 있지 않을지 우려되느니라. 77년생 공물어 왔던 일에 대한 회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89년생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순응하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0, 16</p>	<p>35년생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좋다. 47년생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59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긍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83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08, 5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